

전립선암 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

2024년 6월 12일 미디어 문의

앨버타 주 정부는 앨버타 암 재단과 협력하여, 전립선암에 걸린 앨버타 주민들에게 더 나은 진단 결과를 제공할 것입니다.

앨버타 남성 6명 중 약 1명은 사는 동안 한번은 전립선암에 걸리며, 이번 남성 건강 주간에 앨버타 주 정부는 전립선암 치료를 향상시킬 혁신적인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조기 진단과 개입은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.

앨버타 주는 2년 동안 3백만 달러를 투자하여, 앨버타에서 전립선 특이막 항원 (PSMA)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(PET) 및 컴퓨터 단층 촬영 (CT) 스캔의 가용성을 높일 것입니다. 이 기금은 앨버타 암 재단과 매칭되어, 총 6백만 달러가 투자될 것입니다.

PET/CT 스캔은 방사성 추적자를 사용하여 조직과 장기 기능을 파악하는 기능적 진단 영상 검사입니다. 이러한 스캔은 특정 암을 진단하고,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 평가하며,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현재 PSMA PET/CT 스캔은 임상 시험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데, 캐나다 의약품청의 검토와 자금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,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스캔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

이러한 임상 시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면, 더 나은 진단과 치료 계획을 통해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결과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스캔 및 수술을 줄여, 매년 약 2천 명의 앨버타 주민들이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.

”전립선암은 앨버타 주 남성 암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. 이 투자는 특별한 종류의 임상 시험을 지원하여, 전립선암 환자와 후속 치료가 필요한 암 재발 환자의 진단 및 병기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미 입증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. 이번 남성 건강 주간을 맞아, 앨버타 주민들에게 전립선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

사실을 상기시키고 싶고, 모든 앨버타 주민들에게 남성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장합니다.”

에드리아나 라그레인지 (Adriana LaGrange), 보건부 장관

현재 의료 전문가들은 전립선암을 진단하고 병기를 정하기 위해 CT와 뼈 스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 종양 전문의들과 핵 방사선 전문의들은 PSMA PET/CT 스캔이 고위험 및 재발성 전립선암의 병기 결정에 더 효과적이어서, 보다 정확한 진단과 정보에 근거한 치료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
이 기금은 에드먼턴의 크로스 암 연구소 (Cross Cancer Institute)와 로열 알렉산드라 병원 (Royal Alexandra Hospital), 캘거리 풋힐스 메디컬 센터 (Foothills Medical Centre)에서 PSMA PET/CT 스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.

요약 정보

- PET/CT 스캔은 전립선암 세포에서 다량으로 발견되는 단백질인 PSMA를 검출하는 방사선 추적자를 사용하여, 전신의 전립선암을 검출하는 데 사용됩니다.
-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은 대략 40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.
-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앨버타인 30명 중 1명은 생존하지 못합니다.
- 전립선암의 약 5%는 예방이 가능합니다.

관련 정보

- [전립선암](#)
- [전립선암 검진](#)
- [2024년 앨버타 암 통계 보고서](#)
- [함께 더 건강하게](#)

미디어 문의

안드레아 스미스 (Andrea Smith)

780-405-0775
보건부, 언론 비서관